

숙명여자대학교

2014학년도
- 수시2차모집 논술우수자전형
기출문제 (인문계열 3교시)

※ 본 기출문제는 2014학년도에 출제된 내용이며, 출제의도 및 문제해설은 2015학년도 논술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기업이야말로 여성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특히 고위 경영자 자리에는 여성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유럽 대학 졸업자의 60%가 여성인 반면, 기업 최고책임자 중 여성은 평균적으로 10%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유럽 국가도 많다. 일례로 스웨덴은 21%인 반면 독일은 3%에 불과하다.

유럽 전반에서 기업의 여성 임원 쿼터를 지정하려는 투쟁은 2012년 말 결국 꺾데기만 남고 말았다. 40%의 비율이 유럽 표준으로 채택됐지만, 그것을 의무화할지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결국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했다. 답답할 정도로 더딘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 속도는 분명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성 임원의 수적 확대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왜 더 빨리 실행되지 않는가? 이는 단순히 여자가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 남성 기득권층 인맥 때문인가?

물론 상황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여성이 최고 책임자 자리로 향하는 길목에서 맞닥뜨리는 갖가지 장벽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 사회적 환경의 장벽, 기업 내 장벽, 여성과 남성 사이의 장벽 그리고 여성들 간에도 장벽이 있다. 여성들 다수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남성의 코드를 통달해야’ 한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이중 삼중으로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여성은 스스로 기대치를 낮춘다. 여성 중 3분의 1 이상이 어느 시점엔가 직장생활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다. 출산 이후 정규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여성 대다수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여성에게 ‘일과 가정은 병립이 불가능한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회에 존재하는 유리천장과 유리벽은 여성의 활동반경을 제한하고 있다.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한 곳만은 아니다. 직장을 다니며 체험하는 일반적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하다. 능력 있는 여성이 각종 장벽으로 인해 사회인으로서의 로드맵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실질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소수자 우대 정책과 같은 실천이 필요하다.

<나> 사회란 비록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해관계의 일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상충이라는 특성도 갖는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사는 것보다 사회협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된다. 각자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진 개인들 간에 공유되는 정의관은 동료시민으로서의 유대를 공고히 해주며, 정의에 대한 보편적 욕구가 다른 목적들의 추구에 한계를 정해준다. 우리는 이러한 공공적인 정의관이 질서정연한 인간 공동체의 기본적인 현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핵심이 되는 생각은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기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정의의 원칙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협동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 결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분배를 정해줄 원칙들을 함께 채택한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원론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원칙을 채택하리라는 것이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내세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복지가 그들의 만족스런 삶에 필수적인 사회 협동체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득의 분배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사회에 가담하는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다>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본성 때문에 그들이 각각 현재와 같은 기능과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본성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현재와 같은 남녀관계가 유지되는 한, 상

식과 인간 정신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누구도 남녀의 본성에 대해 안다거나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회가 존재했다면, 각각의 본성 속에 들어 있는 정신적·도덕적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분명히 알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여성의 본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확실히 인위적으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부자연스럽게 영향을 준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단언하건대, 종속 상태에 있는 그 어떤 계급도 그들을 지배하는 집단과의 관계 때문에 자신의 타고난 본성이 이처럼 철저하게 왜곡되는 경우는 없었다.

오늘의 사회를 관통하는 모든 원리에서 보면,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문제는 어떤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본인들이 직접 부딪히며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도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을 대신해서 찾아줄 수는 없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자기 본성에 따라 행동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여성이 그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남성만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 원리에 따라 배제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만일 여성이 천성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 남성에 비해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법이나 사회적인 교육을 통해 일부러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는 없다. 무엇이든지 여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이라면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이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여성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다. 여성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지닌 능력이 사회 전체에 가장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트밀, 『여성의 종속』(1869)】

1. <가>와 <표 1>에 나타나는 ‘여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의 입장에서 <다>의 주장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논하시오. (1,000±100자)

<표 1> 부부 취업여부 및 맞벌이 부부의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

	남/녀	인원(명)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분)*
		취업	비취업	합계	
자녀 무(無)	남편	416	28	444	430
	부인	212	232	444	377
미취학 자녀 유(有)	남편	2,858	150	3,008	452
	부인	1,153	1,855	3,008	515

* 모든 하루 평균 총 노동시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가> 병원, 정신병자 수용소, 감옥, 병영, 공장으로 이루어진 규율사회는 더 이상 오늘의 사회가 아니다. 규율사회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사회가 들어선 것이다. 그것은 피트니스 클럽, 오피스 빌딩, 은행, 공항, 쇼핑몰, 유전자 실험실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21세기의 사회는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모했다. 이 사회의 주민도 더 이상 '복종적 주체'가 아니라 '성과주체'라고 불린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기업가이다.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규정하는 것은 금지의 부정성이다. '~해서는 안 된다'가 여기서는 지배적인 조동사가 된다. '~해야 한다'에도 어떤 부정성, 강제적 부정성이 깃들여 있다. 성과사회는 점점 더 부정성에서 벗어난다. 점증하는 탈규제의 경향이 부정성을 폐기하고 있다. 무한정한 '할 수 있음'이 성과사회의 긍정적 조동사이다. "예스 위 캔(Yes we can)"이라는 복수형 긍정은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 성격을 정확하게 드러내준다. 이제 금지, 명령, 법률의 자리를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모티베이션이 대신한다. 규율사회에서는 "노(No)"가 지배적이었다. 규율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는다. 반면 성과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하나의 층위에서만은 연속성을 유지한다. 사회적 무의식 속에는 분명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다. 생산성이 일정한 지점에 이르면 규율의 기술이나 금지라는 부정적 도식은 곧 그 한계를 드러낸다.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규율의 패러다임은 '성과의 패러다임' 내지 '할 수 있음'이라는 긍정의 도식으로 대체된다. 생산성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금지의 부정성은 그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적 무의식은 당위에서 능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성과주체는 복종적 주체보다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다.

성과주체는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착취하는 외적인 지배기구에서 자유롭다. 그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그는 자기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지배기구의 소멸은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다. 소멸의 결과는 자유와 강제가 일치하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성과주체는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강제하는 자유' 또는 '자유로운 경쟁'에 몸을 맡긴다.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달는다. 자기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에 타자의 착취보다 더 효율적이다. 착취자는 동시에 피착취자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 관계적 상태는 어떤 역설적 자유, 자체 내에 존재하는 강제구조로 인해 폭력으로 돌변하는 자유를 낳는다. 성과사회의 심리적 질병은 이러한 역설적 자유의 병리적 표출인 것이다.

<나> 왜 오늘의 삶에는 의미가 깃들지 않는가? 왜 삶의 시간들은 의미의 결절점(結節點)들을 만들지 못하고 부서져 공허하게 흩어져버리는 것일까? 이게 다 느낌에서 멀어진 탓이다. 느낌에서 멀어지며 닳친 것은 존재의 본질에서 분리되는 위기, 자기 동일성 해체의 위기, 공허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위기다.

한 세기 전만해도 아직 느낌이 있었고, 우리는 의미가 생성되는 느린 시간 속에 머물 수 있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며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 시절 여행자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고, 밤하늘 아래에서 노숙하며 신과 영원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신과 영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난청(難聽)의 시대에 우리 귀는 온갖 기계들의 소음에 시달릴 뿐이다.

우리는 조급성과 가속도를 얻은 대신 심심함과 곳곳이 머무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조차 심심함 속에 머물지 못한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수다를 떠다. 들길을 걸으며 제 존재 안에 머물던 시간도, 밤하늘의 별들을 우러르며 삶의 의미를 숙고하던 시간도 다 잃어버렸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느낌과 숙고에 대해 알지 못하는 까닭에 쉽게 불행에 감염된다. 느낌과 숙고의 바탕은 고요다. 숙고는 고요의 잉태이고, 그것의 출산이다. 숙고는 느리게 꾸준히 생각하는 것, 흠여지는 시간을 모아 사유의 온전함을 만드는 것인데, 메마른 노동과 수다를 멈출 때 홀연히 나타난다. 이것을 모르니 느긋함 속에서 누리던 행복도, 저마다의 내면에 의미가 깃들 가능성도 깡그리 잃어버렸다. 참 슬픈 일이다.

존재의 의미는 지속과 느낌에서 머무거릴 때 솟구친다. 가끔 들길을 걸을 때 심심함이 나를 감싸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봄날의 활기참과 가을날의 서늘함은 들길의 호젓함 속에서 청명해지고 무르익는다. 하이데

거는 “들길 주위에 자라나 머물고 있는 모든 사물들, 이들의 넓이가 세계를 선사한다.”라고 썼다. 들길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자기 안에 머무는 집중성, 자기에게로의 호젓한 귀환, 새거나 깨진 데가 없는 온전한 지속성이다.

<다> 우리 시대에 마음의 치유가 간절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사람을, 세상을 힘들게 만들까? 극심한 경제 양극화, 중산층 붕괴와 장기 불황사회로의 진입, 비정규직 양산, 희망 없는 청년의 삶, 그리고 경쟁 교육과 정치 갈등으로 인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힐링(healing)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대표적인 문화 트렌드로 부상했다. 그러나 문화 유행으로서 힐링이 우리 시대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힐링 관련 책들은 저마다의 관점에서 현실의 아픔을 달래며 이겨내라고 격려한다. 힐링 관련 토크쇼는 유명 연예인과 인사들의 마음을 치유하려 든다. 힐링 영화, 힐링 콘서트, 힐링 뮤지컬은 힐링을 상품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형적인 문화 마케팅의 산물이다. 어떤 점에서 힐링이라는 문화 트렌드는 기만적이다. 왜냐하면 힐링이 필요한 원인을 상품 코드로 전환시켜 아픈 마음을 상품으로 치유 받으라고 권유하기 때문이다. 힐링 문화는 힐링이 필요해진 원인을 제거하길 원치 않는다. 원인을 제거할 의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힐링 문화가 지속 되려면 그 원인이 제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힐링의 문화 트렌드는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길 원한다. 힐링은 그런 점에서 고통마저 상품으로 판매하는 자본의 기제인 셈이다.

우리 시대의 힐링 문화에는 ‘힐링’이 없다. 힐링에는 말과 상품만 존재한다. 힐링은 ‘착한’ 가면을 쓴 비열한 자들의 ‘선한’ 유혹이다.

2. <가>의 논지를 통해 <다>의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00±100자)